

“집은 특정한 기억이나 정서 뛰어넘는 한 개인의 우주다”

프랑스의 건축가 폴 앙드레는 이런 말을 했다. “나를 품어주었던 집, 내가 자랐던 집은 그 후 내 속에 있고 나와 더불어 세월의 지평선으로 사라진다.”

폴 앙드레의 말은 단순한 건물과 공간의 의미만을 상징하지 않는다. 한 인간의 역사와 흔적 등이 고스란히 담겨 있음을 전제한다.

“사람들은 대부분 집에 대해 어떤 재료로 내부와 외부의 덮개, 가구를 어떻게 놓을까, 방의 크기는 어느 정도로 만들까 하는 부분에만 신경쓴다. 그러나 집은 그런 물리적인 요소로만 이루어지는 것이 아닙니다. 그것보다 더욱 중요한 것은 그 집 구성 구석에 배어든 사는 사람의 생각과 온기입니다.”

홍익대 건축학과 동문이자 가운건축을 운영하고 있는 노은주·임형남 부부의 말이다. 이들에게 건축은 “땅이 꾸는 꿈이고, 사람들의 삶에서 깊어 올리는 이야기”다. 지금까지 이들은 ‘골목 인문학’, ‘생각을 담은 집 한옥’, ‘사람을 살리는 집’과 같은 책을 펴냈다. “가장 편안하고, 인간답고, 자연과 어우러진 집을 궁리”하기 위해 골목을 거닐고 도시를 산책했다.

이번에 이들이 펴낸 ‘집을 위한 인문학’은 집을 우리에게 무엇인가? 라는 고전적이면서도 가장 본질적인 물음을 던진다. 집을 단순히 제테크 수단으로 보는 시각과는 차원이 다른 얘기다. 책을 관통하는 핵심 주제는 바로 “집은 특정한 기억이나 정서를 뛰어넘는 한 개인의 우주다”라는 것이다.

“한 개인의 우주”라는 말이 주는 울림은 만만치 않다. 일상과 삶을 아우르고 기억과 추억, 한 인간의 모든 정신까지 담겨 있다는 의미다. 집이 단순한 자재와 설계로 이루어진 물리적인 공간을 넘어 정신과 정서로 쌓아올린 총체물이라는 개념이다.



집을 위한 인문학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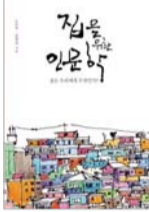
노은주·임형남 지음

그렇다면 저자들이 이야기하는 집은 구체적으로 어떤 집일까?

먼저 집은 가족을 품는다. 지극히 당연한 말이지만 세상에 이 말만큼 따뜻한 표현은 없다. 구례에는 3대가 사는 전통적인 가족을 위한 집이 있다. 저자들에 따르면 바깥에서 보면 2층집이지만 4개의 레벨을 가진 집이다. 반층 씩 물린 4층의 집으로 할머니의 공간과 가족의 공간, 부부의 방, 아이의 방이 있다. 여기에 남편의 공간이자 취미를 위한 공간도 있다.

“그리고 거실 앞에 손님이 오면 목을 수 있는 별채를 만들었다. 가족들의 공간이 각각의 프라이버시를 지킬 수 있도록 분리되어 있지만, 서로 시선이 닿는 곳에서 교감을 나눌 수 있도록 적당한 거리를 갖도록 한 것이다.”

두 번째로 집은 사람을 품는다. 경남 하동의 ‘적이재’는 산과 강이 함께 한다. ‘고요히 머무르며 우려른다’는 의미는 오래된 시골의 모습을 떠올리게 한다.



저자들은 집에는 일상과 기억, 정신까지 담겨 있다고 본다. 겉에서 보면 2층집이지만 4개의 레벨을 가진 구례의 4층집(위쪽)과 ‘고요히 머무르며 우려른다’는 뜻의 하동의 ‘적이재’.

다. 정년을 맞이한 어느 가정이 서울 살림을 거두고 부인의 고향 하동으로 낙향을 했다.

주인은 집을 짓기로 마음먹은 후 어린 시절 살았던 농촌의 마루가 있고 텃밭과 마당이 있는 집을 원했다. 그로 인해 외관은 한옥을 모티브로 삼았다. 저자는 “건축의 온도는 무엇이고 삶의 온도는 무엇일까?”라고 묻는다.

“일을 마치고 집으로 돌아갈 때 멀리서부터 우리를 맞이하던 밥 짓는 연기처럼, 어머니가 끓이는 된장국 냄새처럼, 가꾸지 않아도 편안한 마당처럼, 가족들이 아랫목에 발을 댄다고 하릴없이 떠드는 말의 온기처럼, 일부러 애쓰지 않아도 교감할 수 있는 그런 것이 모여 만들어내는 것이 아닌가 싶다.”

또 하나는 집은 자연을 품는다. 충남 아산시 동정리 ‘선의 집’은 수평으로 뻗어나간 집과 원래 자리에 있던 수직의 소나무가 어우러져 있다. 산이 적당하게 둘러싸고 있으며 저수지 인근에 논밭이 있다. 하나의 땅에 세 개의 집이 산봉우리처럼 솟아오른 풍경은 자연과의 조화를 떠올리게 한다.

마지막으로 집은 이야기를 품는다. 건축가의 입장에서 집을 짓는다는 것은 정답과는 무관하다. 집이 생명력을 얻고 기억되는 것은 그 안에 이야기가 있기 때문이다. 저자들은 “그저 막막하기만 하던 빈 땅에 선이 그어지고 벽이 올라오고 지붕이 덮이기까지의 과정은 낮은 골목에서 여기저기 들어가 보고 되돌아 나오며 마침내 출구를 찾을 때까지 헤매는 과정과 비슷하다”며 “누가 정의해주고 알려주지 않아도 단편적인 이야기들과 지식들을 모아 큰 줄기를 이루는 하나의 이야기로 완성해나간다”고 강조한다.

〈인물과사상사·1만6000원〉
/박성천 기자 skypark@kwangju.co.kr

법정스님 인생승원가

정찬주 지음

“행복할 때 행복에 매달리지 말라” “불행할 때 불행을 회피하지 말라” “자기 삶을 순간순간 살피어 보라” “멈추어 있는 것은 아무 것도 없다.”

2020년이면 법정스님이 입적한 지 10주기가 된다. 법정스님의 재가제자 정찬주 작가가 스님의 말씀으로 명상한 이야기 ‘법정스님 인생승원가’를 펴냈다. 책은 산방에서 풀이낸 에세이이자 명상록이다. ‘술바람으로 귀를 찢어 불(佛)을 이룬다’는 뜻의 ‘이불재’ (耳佛齋)에서 기거하며 작가는 자연을 벗 삼아 작품활동을 하고 있다.

“스님께서는 무염(無染)이라는 법명을 주시면서 ‘저것거리에 살되 물들지 말라’며 짧은 법문을 해주셨다. 이후 나의 법명은 내 인생의 좌우명이 됐다. 산중에서 살면서 느끼는 것인데 가끔씩 돌아가신 스님의 말씀이 메아리가 되어 사라지지 않는다. 스님의 말씀은 깊은 산의 메아리처럼 울림이 크다. 저물녘에 늙는 산 그림자같이 여운이 깊다. 산이 품고 있는 오래된 침묵에 응답하는 메아리 같다.”

책은 모두 3부로 구성돼 있다. 1부 ‘스님의 공강언어’, 2부 ‘스님의 공강법어’, 3부 ‘스님의 명동성당 특별강연’으로 스님의 말에 작가는 ‘마중물 생각’, ‘스님의 말씀과 침묵’, ‘갈무리 생각’으로 서-본-결의 구조로 구성했다. 삽화는 정 작가의 딸로 영국 킹스턴대학교 대학원에서 일러스트레이션을 전공한 정운경 작가가 그렸다.

정호승 시인은 추천사에서 “이 책에 있는 스님의 귀한 말씀 한마디 한마디가 바로 스님의 사리이며 영혼의 보석이 아닐 수 없다”며 “다비하고 다 타고 남은 잿더미 속에서 사리처럼 견져낸 법정스님의 이 말씀의 사리를 가득 받아들이고 나는 오늘 영혼의 부자가 되었다”고 평한다.

〈다연·1만5000원〉
/박성천 기자 skypark@kwangju.co.kr

위험한 비유

최제훈 지음

2007년 ‘문학과사회’ 신인문학상으로 등단 후 2011년 한국일보문학상을 수상한 최제훈 작가가 소설집 ‘위험한 비유’를 펴냈다.

‘놀라운 작가의 탄생’이라는 상찬을 받은 첫 작품집 ‘퀴리발 남자의 성’ 출간 이후 9년 만에 선보이는 장작집이다. 모두 8편의 소설이 담긴 작품집에서도 기존의 탄탄한 문장과 예상을 뛰어넘는 서사 전개로 작가적 역량을 보여준 바 있는 작가의 일면을 볼 수 있다.

작가는 이번에는 다양한 관계 속에서 파생되는 “꿈틀거리는 생명력”을 펼쳐 보인다. “초현실주의 테마와 거친 터치”의 결합은 이전의 내 작품에서 볼 수 없었던 독창적인 아름다움을 탄생시켰지”라는 표현처럼 특정한 균열을 계기로 사건이 전개된다. 표제작 ‘위험한 비유’는 숨겨진 진실을 향해 나아가는 추적의 서사에 초점이 맞춰져 있다. 실재와 환상이 뒤엉킨 미스터리로 풀어가는 속도감 넘치는 문체가 이색적이다. 진실과 거짓이 교묘하게 교란된 모순의 세계를 바라보는 작가의 시선은 지적이면서도 날카롭다.

“당신은 내가 쓴 기형의 문장이며, 아직 못다 쓴 미지의 문장이며, 그 사이를 지나는 모래바람이다. 당신은 내 머릿속을 떠도는 검은 비닐봉지, 내 꿈을 기웃거리는 버려진 기억이다. 당신은 내 온몸을 유령하고 심장으로 회귀하는 검붉은 피다. 당신은 담배 연기에 실려 흩날리는 내 눈송자다. 당신은 내 늙은 손톱이다. 당신은 나다.”(‘위험한 비유’ 중)

작가의 문장은 세밀하면서도 특유의 리듬감이 살아 있다. 부분 부분의 디테일이 살아서 움직이는 느낌을 준다. 그러면서도 서로 다른 존재들의 예상치 못한 조우와 거기에서 파생되는 그로테스크한 세계는 최 작가의 소설이 주는 이색적인 맛이다.

〈문학과지성사·1만3000원〉
/박성천 기자 skypark@kwangju.co.kr

음악, 좋아하세요?

엄상준 지음

“모차르트의 짧은 도약을 들으며 세상의 누군가가, 내가 모르는 공간에서, 또 다른 도약을 꾸꾸고 있을 것이라 생각한다. 마음이 찢어지고 든든하다. 현실은 언제나 우리를 무겁게 만들지만 우리가 도약의 소망마저 빼앗긴다면 우리에게 무엇이 남겠는가?”

인류는 출발과 더불어 음악과 함께 해왔다. 사람들은 밥먹듯이 음악을 들으며 즐긴다. 횡단보도를 건너면서도 이어폰으로 들려오는 음악에 귀를 기울이기도 한다. 이는 세상에 셀 수 없이 많은 아름다운 음악이 존재한다는 것을 의미한다. 이처럼 클래식, 국악, 대중가요 등 다양한 명곡들을 소개하는 ‘음악, 좋아하세요?’가 출간됐다.

저자 엄상준은 성균관대 신문방송학과를 졸업하고 기자생활을 하다 라디오 PD가 됐다. 이후 영화, 소프로그래머 등 TV 프로그램을 제작하고 있다.

저자는 지난 3년간 ‘중앙일보’ 일요판 ‘중앙선데이’에 연재했던 음악 칼럼 중 42편을 골라 신문에서 미처 하지 못했던 이야기를 추가하고 새롭게 다듬어 엮었다.

책에는 봄, 여름, 가을, 겨울의 사계절에 어울리는 책과 음악이 각각 12개씩 담겨있고 일상의 단상 등이 소담하게 버무려져 있다.

베토벤으로 시작해 모차르트와 바흐, 드보르작, 브람스 같은 클래식 음악은 물론 박동진 명창과 황병기, 배일동 등의 국악인, 김대중, 김국찬과 귀재들, 윤종신, 이문세 등 대중음악인들의 이야기를 담고 있으며 스탠 게츠와 사이먼 앤 가펩클, 에릭 클랩튼, 레드 제플린 등의 외국 뮤지션 및 체칠리아 바르톨리, 막스 레거, 필립 글래스, 레너드 번스타인, 도미니크 스카를라티까지 다양한 음악 이야기가 풍성하다.

〈호밀밭·2만2000원〉
/전재재 기자 ej6621@kwangju.co.kr

우체국 예금

나를 알아주는 착한금융

소중한 자산, 잘 지켜주고 돌려주고- 금융의 기회, 누구에게나 열어주고- 당신 결연 늘 우체국금융이 있습니다.

우체국금융

할정도의 혜택

- 월급은 모르고, 저금은 모르고-
- 여행후로는 왔고, 자금계획은-
- 신혼에 적당한 저축 금융 원가요?
- 자신은 인원이 회고인데-
- 책임부터 자산관리까지 우체국금융에 맡기세요!

우체국 쇼핑

참 가까운 우체국 쇼핑

안심 쇼핑 1번지 우체국 쇼핑

소중한 사람에게는 사랑이 가득 담긴

우체국 택배

1588-1300

우체국 쇼핑

참 가까운 우체국 쇼핑

안심 쇼핑 1번지 우체국 쇼핑

우체국보험

국가가 운영하는 우체국보험

당신을 우체국FC(보험설계사)로 모십니다.

서울우체국 FC 이재성 대구수성우체국 FC 김명숙
경남우체국 FC 김미연 광주우체국 FC 신하연

지원문의

· 자세한 사항은 가까운 우체국으로 문의

EMS

스마트 접수 서비스

EMS 스마트 접수 서비스 이용하고, **요금 5% 할인** 받으세요.

우체국 준등기우편서비스

일반우편물을 수취인 주소지의 수취함 등에 배달할 경우, 발송인에게 배달결과를 카카오톡, SMS 등으로 제공하는 우편서비스입니다.

전남지방우정청